

작가에 대한 애정이 문학에 대한 지원으로

한국컴퓨터지주회사 홍정균 대표

〈한국문학〉은 1973년 11월 '민족문학의 수립과 팽창한 문단 인구의 기회균점'이라는 취지로 소설가 김동리 선생이 창간한 문예지다. 이후 이금배 선생과 조정래 선생을 거쳐 1989년 한국컴퓨터를 경영하다 그만두고 소설가가 된 홍상화 선생이 발행인으로 있어 왔다.

"15년 전 일이 생각납니다. 컴퓨터업계 최초의 상장회사인 한국컴퓨터를 창업하시는 등 20년 가까이 사업으로 얼굴 빚기조차 힘들었던 부친이 갑자기 뜻밖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사업은 그만두고 소설을 쓰시겠다고요. 그후 〈한국문학〉 잡지를 인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균(35) 대표가 〈한국문학〉에 참여하고 지원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아버지 홍상화 씨 때문이었다. 2002년 11월 발행인이 되기 전까지 홍 대표는 〈한국문학〉에 실려 있는 소설들을 재미있게 읽는 독자였고 이를 통해 문학에 대한 애정을 키워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혈연이라고 치부해서는 곤란하다. 한국 경영인들이 성장과정에서 문화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점에서 홍대표의 지원은 문화를 가까이서 경험했던 한 기업인의 사례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접하면 접할수록 그 장르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영전문가라고 해도 〈한국문학〉 자체만으로는 적자를 면할 수 없었다. 매호 2,000만원이 넘는 제작비에 비해 수입원인 정기구독이나 서점판매는 턱없는 수준이었다.

"철저한 경제원칙에 입각해 기업을 경영해 오던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구조였죠. 어떻게 하면 매호 제작비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편집방향을 견지할 수 있을까, 작가의 소중한 산물인 창작물이 서점으로 나가자마자 반쯤되어 폐용지 처리장으로 가지 않고 보다 많은 독자들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대한 최선의 선택이 바로 한국컴퓨터지주회사의 지원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컴퓨터지주회사 외에도 계열사인 한네트, 한국트로닉스 등이 문학지원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해 고객증정용으로 구입하고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그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한국문학〉을 받아보던 고객이 못 받으면 영업직원에게 전화를 해 재촉하기도 한다. 제조업체인 한국트로닉스의 경우 신입사원 채용 대상인 구미지역의 학교 선생님들에게 책을 증정하고 있다. 학교로서도



문학을 지원하는 회사라며 믿고 더 우수한 인재를 추천하는 등 책을 통한 꾸준한 접촉은 회사의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회사의 생각이다. 〈한국문학〉의 입장에서는 적자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충분한 원고료를 주며 양질의 작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창작자로서도 생계에 도움이 되는 원고료를 제때 받고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지면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질이 높아진 잡지에 독자들이 만족한 것은 물론이다.

홍 대표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기업이 일방적으로 '가난한 출판문화'를 돕는 것은 큰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베푸는다는 의식으로 지원한다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생리상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기업이 출판문화에 대한 지원을 자기 기업의 이익만 도모하고 자신들의 방식을 강요한다든지 하는 불상사는 없어야 하겠죠. 〈한국문학〉의 경우 편집인에게 모든 권한과 자유를 줍니다. 한편 출판인들도 기업으로부터의 일방적인 지원만 받는다면 결국 자생할 수 있는 힘을 갖추지 못하여 스스로 발전의 기회를 포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지속적이면서 상호 존중하는 상생의 방법은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취재 | 신동섭 기자